

11월11일 월요일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본장에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위로를 베푸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 경험한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 바울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9-10절)

2장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심각하게 불거진 하나의 문제는, 온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였습니다. 사도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를 감싸 안으면서 도리어 사도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눈물로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읽은 적잖은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순종하여 그 사람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는 그를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7절).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하고 () 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3장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는 본장에서 자신에게 추천장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의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1절). 사도는 당시 순회 교사들이 사용하는 추천서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자신의 추천장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1-2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의 마음에 쓰여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추천장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가짜 사도라면, 사도에게서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 자신도 가짜라고 말함으로써,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 증명을 고린도 교인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4장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사도는 자신이 받은 직분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한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빛은 무엇인가요?

11월12일 화요일

5장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는 계속해서 하늘과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성도는, 탄식할 정도로 그 영원한 집을 기다립니다. (2,4절) 더불어 이와 함께 사도가 가지는 마음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3절).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10절)

6장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사도는 자신을 여전히 비난하며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한 후에(5:20),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기회라고 말합니다. "보라, ()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은 구원의 날이로다."

7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사도는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너무 심하게 써서, 고린도사람들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을지 후회 했었지만,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를 하였다는 소식은 사도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게 하였고, 그 회개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나요? (9-11절)

8장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과 극심한 () 가운데서도(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4절), 그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을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5절)

11월13일 수요일

9장 성도를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헌금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색함이 나 억지로 하지 않고, 너그럽고 즐거이 헌금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 2가지는 무엇인가요?(12절)

10장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본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바울에 대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현혹 시켰나요? (2,7,10절)

11장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사도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며(22절), 복음전도자로서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23-28절)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30절). 바울사도는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 누가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요?(31절)

12장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본장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낙원에 올라가는 체험을 기록한 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소개합니다(5절 이하). 자신이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하여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약함이 저희를 주눅 들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13장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본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사도의 세 번째 방문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것(1-2절)과 믿음을 점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5절).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너희는 믿음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하고, 너희 자신을 ()하라."

11월14일 목요일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더베 지역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처인 남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할례와 율법을 더함으로써,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보고서, 사도는 이를 바로잡고자 갈라디아서서를 썼습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하나요?

2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방인 교회)을 방문하여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을 보자 갑자기 식사 자리를 떠나는 위선에 대해 책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3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본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창세기의 말씀을 찾아 보세요.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6절)- 창세기 15:6 2)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8절) -창세기 12:3

4장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사도바울은 본장에서 복음으로 자유가 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11월15일 금요일

5장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주목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갈등합니다(17절). 하지만 이것은 대등한 두 세력의 싸움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 피조물이 된 신자 자신과, 그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6-18절)

6장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우리가 서로의 ()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2절). 또한 서로 저주어야 하는 짐 뿐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을 져야 합니다(5절). 헬라어로 5절과 2절의 '짐'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5절의 짐은 배낭처럼 혼자 져야 하는 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도, 남의 짐을 저중으로써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는 형제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저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저주는 삶을 사십시오.

에베소서 1장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가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본장 15-18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사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17-19절)를 천천히 읽어 보시고, 이 기도문으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장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에 의하여 ()으로 말미암아 ()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1월16일 토요일

3장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본장에서 바울사도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직분을 주셨습니다(2절). 사도바울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2절) (영어로는 stewardship of God's grace라고 기록하였습니다)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도록 교회에 은사를 주십니다. 8절에서 사도는 이것을 로마의 개선행진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8절은 시편 68:18의 인용입니다. 승리하고 개선한 장수가 함께 싸운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지도자 직분/은사들입니다(11절). 이 직분/은사들의 공통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5장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사도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3-4절). 성적인 농담이나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종류의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말을 하라고 권면하나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성숙하게 세워갑시다.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13절). 대부분의 전신갑주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이지만, 마지막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싸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